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도덕적 고뇌가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

이진숙^{1,*} · 이소영^{2,†}

^{1,2}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연구교수
(2020년 11월 4일 접수: 2020년 12월 30일 수정: 2020년 12월 30일 채택)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Moral Distress Impact on Person-centered Care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Jin-Sook Lee · So-Young Lee[†]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4, 2020; Revised December 30, 2020; Accepted December 30, 2020)

요 약 :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도덕적 고뇌가 인간중심돌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D시와 G도 소재 요양병원에서 현재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총 154명을 SPSS 25.0로 분석하였다. 간호근무환경은 2.42점, 도덕적 고뇌는 3.27점, 인간중심돌봄은 3.60점이었다. 인간중심돌봄의 영향요인은 간호근무환경, 도덕적 고뇌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도덕적 고뇌의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인간중심돌봄, 간호근무환경, 도덕적 고뇌, 요양병원, 간호사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moral distress,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person-centered care and the experience of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es working in a long-term care hospitals. 154 nurses who wa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in D city and G province were evaluated. Date were collected from May 1st to 31th, 2020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The mean score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was 2.42, the moral distress was 3.27, and person-centered care was 3.60. Person-centered care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moral distress($r=.53$, $p<.001$) and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nursing practice environment($r=.32$, $p<.001$).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ctors which significantly influenced person-centered care wer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Corresponding author
(E-mail: 108959@naver.com)

moral distres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person-centered car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hat improve th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reduce moral distress are required for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Keywords : Person-centered care,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Moral distress,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1. 서론

2026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을 21.1%로 예상하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0년 782개이던 요양병원이 2020년 현재 1,529개로 약 2배 증가하였다[1]. 요양병원의 증가는 그동안 열악한 운영실태와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인간중심돌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3].

인간중심돌봄은 공급자 중심의 돌봄 방식에서 벗어난 수요자 중심변화로 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질 향상으로 간호 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있다[3,4]. 요양병원 환자 대부분 인지기능장애를 가진 환자로 가정에서보다 입원하면서 신체적 공격성, 부적절한 행동, 불안, 우울감 등의 행동심리 증상이 70-90% 이상 높게 보고된다[5]. 이러한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다수의 환자안전에 간호사는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5,6].

현재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 치료의 주요인력으로 뽑히기도 있다[7]. 하지만, 현재 요양병원의 간호 인력은 간호사의 2/3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제도로 표면적으로는 간호 인력이 충분해 보이고 있다[9]. 그러나 실질적인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타 종별 의료기관보다 부족하여 간호사 자신의 올바른 판단으로 간호업무 수행과 대처가 어려워 간호사의 간호업무부담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7,8]. 요양병원 간호사는 이러한 간호 근무환경 속에서 높은 업무 부담감과 근무 의욕 저하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감에 소진과 이직을 고민하며 환자 간호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0]. 또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과 간호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의 자율성 제한, 환자 인권 침해와 같은 윤리적 상황에서 간호사 자신이 내리는 올바른 판단과 다른 간호 수행을 요구받거나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심리적 갈등

이 발생하는데 이를 도덕적 고뇌라고 한다[11,12]. 간호사 자신이 내린 올바른 판단을 수행하기 어려운 간호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는 불안, 분노, 우울, 소진 등의 도덕적 고뇌가 나타나 이러한 증상은 요양병원 환자의 인간중심돌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덕적 고뇌와 간호근무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D시 요양병원 2곳과 G도 소재 요양병원 3곳에서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간호사로 하였다. 3개월 동안의 근무경험으로 조직에서의 근무 태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11]. 표본 수는 G*power 3.1.9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중간효과 크기, 검정력 .90,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를 포함 11개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52명이었고, 탈락률 10-20%을 고려한 182부를 배부하여 170부(93%)가 수거되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자료수집 시행 전 해당 병원 부서장에게 연구목적 설명 후 승인을 받은 후,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연구자가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후 서명동의를 받고 설문지가 포함된 밀봉된 봉투로 배부되었으며, 불성실하거나 미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154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도덕적 고뇌

본 연구에서는 Hamric 등[12]이 개발한 MDS-R Nurse Questionnaire [Adult]를 Chae 등이 한국어판인 도덕적 고뇌 도구(KMDS-R) [14]를 사용하였다. 무의미한 돌봄(5문항), 간호실무(5문항), 기관 및 상황적 요인(4문항), 윤리적 문제를 주장하는데 대한 제약(3문항), 의사실무(4문항)의 총 21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서 도덕적 고뇌의 빈도(0-4)와 불편함(강도)의 정도(0-4)를 측정하여 문항별 도덕적 고뇌 빈도 점수와 불편함의 정도를 곱하고 각 문항별로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고뇌가 큰 것을 의미한다. Chae 등의 연구[14]에서 Cronbach's alpha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3.2. 간호근무환경

본 연구에서는 Lake[15]가 개발한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PES-NWI)를 Cho 등[16]이 한국어판 간호 근무환경으로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간호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에 의한 지지,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총 29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가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ho 등[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2.3.3. 인간중심돌봄

본 연구에서는 Edvardsson 등[17]의 인간중심돌봄 사정도구(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P-CAT)를 Tak 등[18]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개별화된 돌봄(7문항), 조직 및 환경적 지지(6문항)로 구성된 총 13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중심 돌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k 등[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변수 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시행하였다.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인하였고,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 대상자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 서면화된 연구설명서를 통하여 연구목적, 10-15분의 소요시간, 설문지의 익명 보장, 연구 참여 중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서면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후 자가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 차이

연구 대상자 연령은 50대 이상이 33.1%로 가장 많으며, 29세 이하가 19.5%로 가장 적었다. 기혼이 65.6%, 전문대졸 34.4%, 일반간호사는 74.7%이었다. 총 경력은 6-10년이 35.7%으로 가장 높았고, 현 기관 경력은 3년 미만이 56.5%였으며, 병상 수는 200-299병상이 42.2%이 가장 높았다[Table 1].

일반적 특성과 도덕적 고뇌와 간호근무환경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인간중심돌봄은 총 경력(F= 4.31, p=.048)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3.2. 도덕적 고뇌,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의 정도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는 평균 80.30± 2.67점이며, 간호근무 환경은 2.42± 0.44점이고, 인간중심돌봄은 3.60± 0.32점이었다 [Table 2].

Table 1. Moral distress,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N=154)

Variables	Categories	n(%)	Moral distress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	≤ 29	30(19.5)	3.20±0.87	1.96 (.137)	3.59±0.55	1.59 (.193)	3.01±0.29	0.09 (.671)
	30-39	38(24.7)	3.50±0.001		3.55±0.31		3.68±0.41	
	40-49	35(22.7)	3.70±0.90		3.71±0.21		3.61±0.56	
	≥ 50	51(33.1)	3.67±0.12		3.72±0.62		2.98±0.56	
Marital status	Singe	53(34.4)	2.78±0.65	2.08 (.901)	3.51±0.46	0.345 (.098)	3.10±0.55	1.88 (.091)
	Marry	101(65.6)	3.76±1.10		3.78±0.46		3.39±0.60	
Education	College	91(59.1)	3.50±1.07	1.98 (.133)	3.53±0.51	1.25 (.771)	2.99±0.50	2.29 (.123)
	University/BSN	49(31.8)	3.77±1.02		3.58±0.59		3.08±0.60	
	≤ Master	13(8.4)	2.98±0.98		3.70±0.61		3.11±0.10	
Postiopn	Staff	115(74.7)	3.59±1.07	1.51 (.121)	3.54±0.47	2.34 (.198)	2.98±0.52	1.87 (.076)
	Change/Head	39(25.3)	3.76±1.01		3.67±0.17		2.98±0.09	
Total career (year)	≥ 5	35(22.7)	3.17±1.11	0.98 (.711)	3.27±0.91	4.12 (.711)	3.31±0.49	4.31 (.048)
	6-10	55(35.7)	3.31±0.91		3.94±0.91		2.98±0.71	
	11-15	21(13.6)	3.71±0.18		3.86±0.57		2.99±0.12	
	≤ 16	43(27.9)	3.72±0.81		3.73±0.57		3.34±0.81	
Clinical career (year)	≥ 3	87(56.5)	3.27±1.11	2.07 (.084)	3.59±0.55	1.98 (.716)	3.22±0.41	1.59 (.231)
	4-6	42(27.3)	3.19±1.09		3.59±0.21		2.98±0.50	
	7-9	13(8.4)	3.70±1.11		3.81±0.19		2.91±0.34	
	≤10	12(7.8)	3.76±0.90		3.72±0.11		3.96±0.62	
Bed	≥ 99	23(14.9)	3.41±0.91	3.34 (.074)	2.37±0.11	2.25 (.097)	3.02±0.59	1.79 (.117)
	100-199	36(23.4)	3.28±1.02		2.40±0.59		2.98±0.45	
	200-299	65(42.2)	3.11±0.19		2.41±0.62		2.99±0.98	
	≥300	30(19.5)	3.19±0.91		3.07±0.11		3.01±0.54	

Table 2. Comparison of Degree of Variables (n=154)

Variables	M±SD
Moral distress	80.30± 2.67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2.42± 0.44
Person-centered care	3.59± 0.32

3.3. 도덕적 고뇌, 간호근무환경, 인간중심돌봄의 상관관계

인간중심돌봄은 도덕적 고뇌($r=-.43, p<.001$)와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고, 간호근무환경($r=.42, p<.001$)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도덕적 고뇌와 간호근무환경($r=.05, p<.001$)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가 낮을수록, 지각하는 간호근무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인간중심

돌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간중심돌봄과 상관관계를 보인 도덕적 고뇌, 간호근무환경과 일반적 특성 중 총 경력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경력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인간중심돌봄의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154)

	Moral distress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Person-centered care
Moral distress	1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05**	1	
Person-centered care	-.43**	.42**	1

** p<.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erson-centered Care (N=154)

Variables	B	SE	β	t	p
Moral distress	.051	.070	.076	1.029	.01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070	.063	.014	.284	.05

 $R^2 = 35.3$, Adjusted $R^2 = 35.0$, $F=8.142$, $p<.001$

회귀모형은 F값 8.142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35.0%였다.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test 1.745로 잔차의 자기 상관성이 없었으며,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에서는 10을 넘지않아 (VIF=1.710-2.418)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유의한 결과는 도덕적 고뇌, 간호근무환경이었다($F=8.142$,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는 평균 80.30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양병원은 병상 가동율은 상급종합병원 84%보다 높은 92.4%이며, 요양병원 입원 환자 대부분이 인지기능 저하로 환자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5,6].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양병원 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환자 상태 판단과 타 병원 이송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19].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의 선행연구에서는 77.1점과 77.16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20,21]. 이러한 차이는 두 연구 모두 요양병원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점점 대형화로 증가하는 요양병원 근무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올바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올바로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올바로 측정하여 비교할 도구가 필요해 보인다.

간호근무환경은 본 연구에서는 2.42점으로 선행연구에서 2.46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20]. 이는 상급종합병원 2.77점, 대학병원 3.06점[22,22]으로 요양병원 간호근무환경의 결과와 비교해 본 경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가 인간중심간호를 위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간호사가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인간중심간호는 높아진다고 하였다[23,24]. 그러므로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비교·분석으로 현재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을 병상수, 주입원환자 유형에 따른 지속적 파악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간중심돌봄은 3.59점으로 선행연구의 3.37점보다 높게 나타났[26].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30대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5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총 근무 기간도 6-10년이 가장 높게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간호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게 나타나

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7].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서비스인 인간중심돌봄은 간호근무환경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지 간호사의 연령과 경력으로만 인간중심돌봄이 높게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간호근무환경에 따른 조직적인 다양한 요인의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은 도덕적 고뇌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간호근무환경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간호사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올바른 결정에 의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인간중심돌봄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간호사 자신이 내린 판단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도덕적 고뇌가 낮을수록 인간중심돌봄은 높아지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28,29].

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덕적 고뇌, 간호근무환경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근무환경이 인간중심돌봄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반복적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와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역과 병상 수의 다양화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호사의 인간중심돌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인간중심돌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Statistic Korea. (2019).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 K. J. Kwon, T. J. Park, S. Y. Lee. (2014). A survey on elderly human rights of geriatric hospitals. Research Service Report.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ov. Report No. 11-1620000-000571-01.
3. S. Morgan, L. H. Yoder, "A concept analysis of person-centered ca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Vol.30 No.1 pp. 6-15, (2012).
4. S. Brownie, S. Nancarrow, "Effects of person-centered care on residents and staff in aged-care facilities a systematic review", Vol.8, pp.1-10, (2013).
5. L. Lorenzo-López, C. de Labra, A. Maseda, T. Lorenzo, H. Agrafojo, J. Luis-Rodriguez-Villamil, L. Gonzalez-Abralades, J. C. Millan-Calenti, "Caregiver's distress related to the patient's neuropsychiatric symptoms as a function of the care-setting", *Geriatric Nursing*, Vol.38, No.2 pp. 110-118, (2017).
6.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Internet]. Press release. Results of Evaluation of Long Term Care Hospitals, 2010: 2011 Sep 30 [updated 2011 Sep 30; cited 2015 Dec 10] Available from: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8197>
7. M. R. Sim, K. H. Kim, "Job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task performance among registered nurses and nurses and nurse assista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6, No.4 pp. 446-454, (2010).
8.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3 cycle long-term care hospital certification criteria, 2019
9. S. S. Kim, *The Experiences in Long-term Care Hospital as a N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2013).
10. J. B. Hessler, M. Schäufele, I. Hendlmeier, M. N. Junge, S. Leonhardt, J. Weber, H. Bickel,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general hospital patients with dementia, distress for nursing staff and complications in care: results of the General Hospital Study", *Epidemiol Psychiatr Sciences*, Vol.27, No.3 pp.

- 278-287, (2018).
11. I. S. Sohn, H. S. Kim, J. S. Kwon, D. L. Park, Y. H. Han, S. S. Ha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new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4, No.1 pp. 85-97, (2008).
 12. A. B. Hamric, C. T. Borchers, E. G. Epstein,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instrument to measure moral distress in healthcare professionals", *AJOB Primary Research*, Vol.3, No.2 pp. 1-9, (2012).
 13. A. Jameton, "Dilemmas of moral distress: Moral responsibility and nursing practice", *AWHONN's Clinical Issues in Perinatal & Women's Health Nursing*, Vol.4, No.4 pp. 542-551,(1993).
 14. Y. Chae, S. J. Yu, E. J., Lee, K. J. Kang, M. S. Park, M. Yu,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oral distress scale-revised for Korean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 228-239, (2016).
 15. E. T. Lake, "Development of the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25, No.3 pp. 176-88, (2002).
 16. E. H. Cho, M. N. Choi, E.Y. Kim, I.Y. Yoo, N. J. Le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for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41, No.3 pp. 325-332, (2011).
 17. D. Edvardsson, D. Fetherstonhaugh, R. Nay, S. Gibson, "Development and initial testing of the Person-centered Care Assessment Tool(PCAT)".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Vol.22, No.1 pp. 101-108, (2010).
 18. Y. R. Tak, H. Y. You, J. H. Kim,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erson centered care assessment tool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5, No.3 pp. 412-419, (2015).
 19. Y. Chae, S. J. Yu, E. J. Lee, E. H. Park, "The relation among moral distress, physical symptoms and burnout of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4 pp. 430-440, (2017).
 20. H. S. Kim, S. E. Yu, K. C. Lim, "Influencing factors on moral distress in long-term care hospital and facility nurs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4, No.5 pp.121-130, (2019).
 21. S. Y. Lee, & J.A. Kim, "A study of comparison of moral distress and burnout betwee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and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6, No.1 pp. 63-70, (2020).
 22. H. S. Joo, W. H. Jun, "Influence of nurses' work environ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long term care hospitals", *Journal Korean Academic Nursing Adm*, Vol.24, No.4 pp. 265-275. (2018).
 23. E. J. Choi, J. Y. Hwang, I. S. Jang, "Effects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and self-esteem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academic Nursing Adm*, Vol.23, No.2 pp. 161-169, (2017).
 24. E. M. Park,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nursing poractice environment on person-centered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2017).
 25. T. Martínez, J. Suárez-Álvarez, J. Yanguas, J. Muñiz, "The person centered approach in gerontology: new validity evidence of the staff assess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Vol.16, No.2 pp. 175-185, (2016).
 26. R. Y. Kang, *Job satisfaction, turnover*

- intention,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in nurses in small-medium sized hospitals categorized by number of be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2018).
27. E. M. Park, N.H. Park,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in person-centered care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Journal Korean Gerontol Nursing*, Vol.20, No.2 pp. 109-118,(2018).
28. J. A. Kim, Y. S. Kang, "Moral di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f nurses working in long 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 240-251, (2018).
29. R. J. Jang,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nursing service in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5).
30. S. B. Kim, Y. R. Park, "Factors associated with person-centered care for elderly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Korea Journal of Adult Nursing*, Vol.31, No.6 pp. 618-617,(2019).
31. S. R. Jung. *Factors affecting person-centered care among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2018).